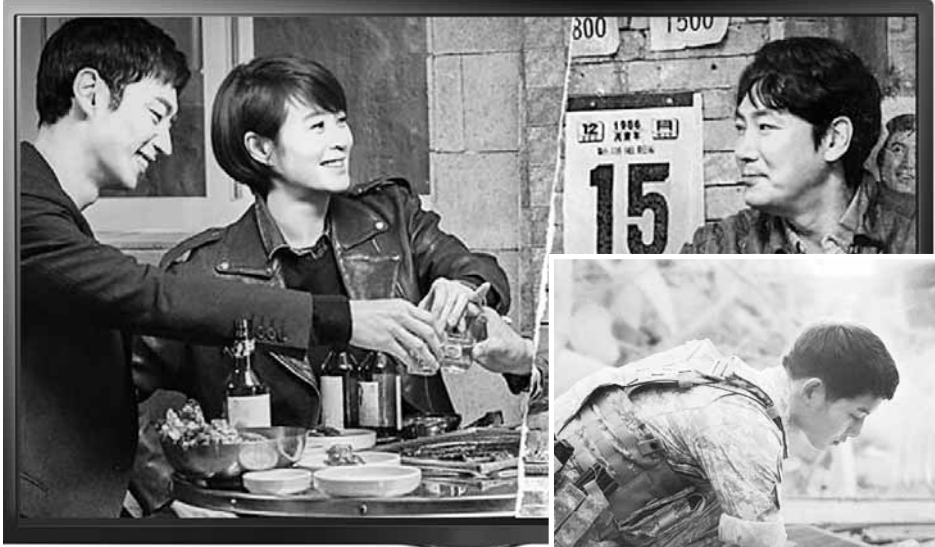




왼쪽부터 ‘시그널’·‘태양의후예’·‘응답하라 1988’



아련한 추억 ‘응팔’

세련된 스타일리 ‘시그널’

한류 신드롬 부활 ‘태양의 후예’ 등

올 한해 안방극장 ‘히트다 히트’

‘태양의 후예’는 지루한 일상에 강렬한 마법을 걸었고, ‘시그널’은 가슴을 때렸다. ‘치즈인더트랩’을 둘러싼 논란은 이보다 뜨거울 수 없었고, ‘또 오해영’은 발견의 기쁨을 줬다. 2016년 한해도 안방극장은 우리의 친구였다.

◇드라마 역사를 새로 쓰다= tvN ‘응답하라 1988’이 지난 1월16일 케이블 사상 최고의 성적이자 당분간 경신이 어려워 보이는 19.6%의 시청률 급자탐을 끌어올리며 막을 내렸다. 아련한 추억과 향수, ‘식구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이 남녀노소를 하나로 만들었다.

1월22일 시작한 tvN ‘시그널’과 2월24일 시작한 KBS 2TV ‘태양의 후예’는 ‘응답하라 1988’의 빈자리를 바로 메웠다.

불굴의 의지로 정의를 쫓는 형사들의 활약상을 그린 ‘시그널’은 범죄 스릴러 장르의 한계를 깨고 13.4%의 높은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 특히 세련된 결말로 마무리도 멋지게 하며 용두사미로 끝나는 많은 드라마와 비교됐다.

본격 사전제작 드라마의 첫 사례로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출발한 ‘태양의 후예’는 첫회에서 바로 기선 제압에 성공하며 16부 내내 거대한 신드롬을 일으켰다. 4월14일 자체 최고인 38.8%의 시청률로 막을 내리면서 송중기를 일약 최고의 스타로 만들었고, 한-

중 동시방송을 통해 중국 대륙을 뒤흔들며 한류 신드롬을 재점화했다.

노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tvN ‘디어 마이 프렌즈’의 성공도 빛났다. ‘늙은이’들의 이야기임에도 외면받지 않고 8.4%의 시청률로 막을 내리면서 한국 드라마의 소재 확대를 이끌었다.

◇히트다 히트~안타 친 작품들= tvN ‘치즈인더트랩’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작의 열성 팬인 ‘치어머니’들의 열띤 논쟁을 낳으며 관심을 받았다. 로맨스 스릴러라는 독특한 성격에도 배우들의 호연에 힘입어 7.2%까지 시청률이 올랐던 ‘치즈인더트랩’은 후반부에는 원작과 다른 전개, 남자 주인공의 비중 축소 논란으로 비난의 포화를 맞은 등 방송 내내 인터넷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여름의 끝자락에 찾아온 KBS 2TV ‘구르미 그린 달빛’은 아름다운 영상미와 박보검 신드롬에 힘입어 최고 시청률 23.3%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누렸다. SBS TV ‘리멤버 아들의 전쟁’과 KBS 2TV ‘동네변호사 조들호’, KBS 2TV ‘아이가 다섯’, SBS TV ‘질투의 화신’은 독특한 소재와 탄탄한 드라마로 시청자를 사로잡았고, MBC TV ‘결혼계약’과 SBS TV ‘미녀 공심이’는 뻔한 이야기를 배우들의 호연으로 극복해내며 안타를 졌다.

tvN ‘또 오해영’은 2.2%에서 출발해 10.6%로 막

을 내리면서 평일 밤 11시 케이블 드라마 시청률의 신화를 세웠고, 만년 B급이었던 서현진을 ‘대세 배우’로 만들었다.

서현진이 여세를 몰아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되고, 한석규의 명연기가 돋보이는 SBS TV ‘낭만닥터 김사부’는 현재 시청률 20%를 넘어서 고공행진 중이다. SBS TV는 그에 앞서 ‘닥터스’도 성공시켜 올해의 히트드라마 불패 행진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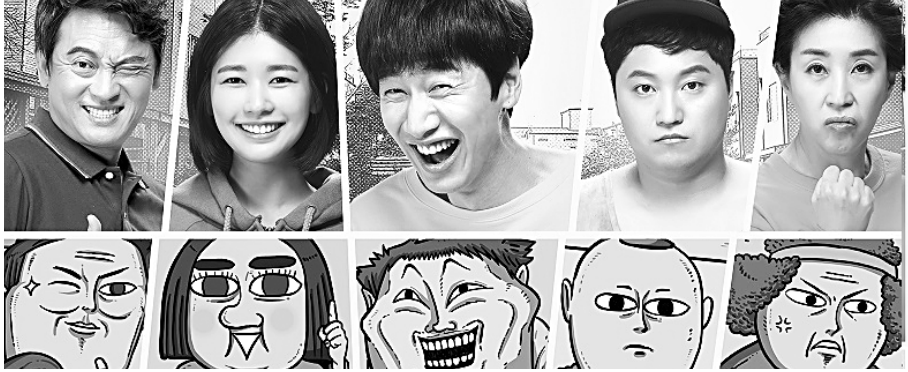
성공한 미국 드라마의 리메이크에 도전한 tvN ‘굿 와이프’는 전도연의 이름값을 확인하게 했고, 서인국은 OCN ‘38사기동대’와 MBC TV ‘소풍왕 루이’를 잇달아 성공시키며 천의 얼굴을 과시했다.

KBS 2TV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은 30%를 넘나들며 현재 순환 중이고, MBC TV ‘육중화’는 20% 전후의 시청률로 최완규-이병훈 콤비의 체면을 세웠다.

◇새로운 시도는 계속된다= SBS TV ‘육룡이 나르샤’는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했으나 팩션사극으로서 장의력을 신나게 발휘했다. 무협에 방점을 찍어 활극의 맛을 보여줬고, 이방원을 새롭게 해석하며 기존 사극에 안주하지 않았다.

tvN ‘혼술남녀’는 혼술, 혼밥 문화와 노랑진 공시생들을 본격 다루며 현실감을 높이 살렸고, tvN ‘더케이투’는 액션 드라마의 진화를 꾀하며 달려나갔다.

연향뉴스



‘마음의 소리’ 시청률 5.7% 출발

이광수 “10% 돌파 기대”

한류스타 이광수가 ‘안투라지’로는 망했지만 ‘마음의 소리’는 건진 듯하다. 이광수 주연 KBS 2TV 시트콤 ‘마음의 소리’가 지난 9일 시청률 5.7%로 출발했다. 인터넷을 통해 선공개되고, 밤 11시에 방송되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소리’는 방송 등판과 동시에 이 시간대 시청률이 2~3%에 머물던 KBS 2TV에 희망을 던져줬다.

KBS 예능국이 동명의 인기 웹툰을 토대로 사전 제작한 ‘마음의 소리’는 만화가 지망생 조석(이광수 분)과 형 조준(김대명), 아버지 조철왕(김병욱), 어머니 권정권(김미경), 그리고 여친 친구 애봉이(정소민)의 엉뚱하고 발칙한 일상을 담았다.

지난달 7일 네이버TV캐스트에서 본편을

공개, 10일 오전 현재 누적 조회 수 2700만을 돌파했다.

이광수는 최근 열린 ‘마음의 소리’ 기자간담회에서 “시청률이 10%를 넘을 경우 KBS 2TV ‘전국노래자랑’에 도전하겠다”며 “시청률이 10%를 넘을 거로 기대하고 일단 (노래를) 연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웹드라마는 아무래도 직접 검색해서 클릭해 봐야 하는데도 2천만이라는 기록이 나와서 실감이 나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극 중 절대권력자 어머니로 등장하는 김미경도 “출연전과 제작진이 가족 같은 사이”라면서 “(웹드라마 인기)는 유행한 예능이 화면 밖으로 전달된 덕분인 것 같다”고 뿌듯해했다.

TV판에서는 이광수와 절친한 한류스타 송중기가 성공한 웹툰 작가로 특별 출연할 계획이다.

연향뉴스

문희준·소울

내년 2월 결혼

그룹 H.O.T 출신 가수 문희준(38)과 걸 그룹 크레이용팝의 소울(25)이 내년 2월 12일로 결혼 날짜를 확정 지었다.

문희준의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두 사람이 이날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직 주례와 사회, 축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팬카페를 통해 결혼 소식을 밝힌 두 사람은 첫 아이돌 커플의 탄생으로



문희준·소울

관심을 모았다.

두 사람은 2년 전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며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가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진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연향뉴스

TV 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결여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세나 불날>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4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00 월화드라마 <우리집에 사는 남자> (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TV블로그 꿈지락 05 토크콘서트 화동 55 닥터365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특집방송 1300만 관광도시 여수! 해양관광시대를 열다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05 KBS네트워크특선 방송의 전설 55 숨터 내가 사랑한 문화유산 (재)	00 이웃집 찰스 (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55 닥터 365
2	00 연중기획-빛고을 행복아카데미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00 키즈 사이언스 6	00 순간포착 세상엔 이런일이(재)
3	00 콘서트 필 50 안경 우리말 (재) 55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00 자동차부착성 위키 2 30 TV유지원	00 MBC 뉴스 10 독?독! 키즈스쿨 55 깨미탐험대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 (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토크 30 SBS 뉴스 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SBS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우리집에 사는 남자>	00 월화 특별기획 <불야성>	00 월화미니시리즈 <낭만닥터 김사부>
11	00 KBS 뉴스라인 40 네트워크 특선다큐 <동해안, 다시마가 사라진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여행 길	10 씬스틸러 드라마전쟁
12	30 101세의 프로젝트(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청사특집 다큐멘터리 <미래인간 AI>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아시아민속포토 - 태국 남부 소싸움>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 마루의 어드벤처 07:30 로보카 폴리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동물당 유치원 1~3 08:45 부릉!부릉! 부루미즈 09:00 방귀대장 뽕뽕이 09:15 출동! 슈퍼핑크	09:30 이말! 스페이스 정글 09:40 부모-위대한 엄마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골국밥과 식혜 썩박지>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글로벌 가족정하기 -한국에 신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스페셜 프로젝트 13:40 즐겨온 수학 EBS MATH 13:50 그림을 그려요(2) 13:55 시계마을 티키펍!	14:25 허풍선이 과학쇼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 래빗 15:20 우주탐험가 젯 15:35 요술 상자(2) 15:45 출동! 슈퍼핑크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부릉!부릉! 부루미즈(재) 16:45 동물당 유치원 1~3(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20:40 다큐 오늘 <동물원의 월요일 야시나요?> 20:50 세계테마기행 <도시본색(都市本然) 홍콩, 마카오 - 골목에서 찾은 세계> 21:30 한국기행 <인생보다 야생 - 마지막 화천만을 찾아서> 21:50 EBS 다큐 프라임 <검정시대-너무 이른 작품> 22:45 달라졌어요 23:35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24:05 세상의 모든 법칙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2일(음 11월 14일 戊辰)	
子	48년생 지나간 일이 사람들의 화제거리로 대두하나 대수롭지 않다. 60년생 막연하다면 단처를 드러내게 된다. 72년생 기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눈여겨보아라. 84년생 비슷한 것과 같은 것은 분명히 다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66, 18	午	42년생 열심히 행하더라도 기대해왔던 바에 비해서 성과가 현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54년생 상서로운 기운이 새롭게 싹트게 될 것이다. 66년생 아예 버려야겠다. 78년생 많은 문제점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3, 43
丑	49년생 안정하게 대처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61년생 숨이 가쁜 하루지만 보람은 있을 것이다. 73년생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85년생 너무 함에 겨운 집이라하면 내려놓아야 마땅하다. 행운의 숫자 : 13, 06	未	43년생 결과를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니 절대로 속단이나 방심은 금물이다. 55년생 집착은 발목을 잡을 뿐이다. 67년생 주변의 힘이 빠진다면 복잡해지면서 손해를 본다. 79년생 소강상태를 지나 활성화되리라. 행운의 숫자 : 80, 82
寅	50년생 생소하거나 하황된 것일랑 접어버리고 실질적인 것에 주력하는 것이 무난하다. 62년생 여건의 변화에 따르지 않으면 아니 된다. 74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것이다. 86년생 귀중한 것이니 잘 간수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45, 28	申	44년생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풍성한 성과를 거두는 날이다. 56년생 동세에 따른 파급 효과가 지대하고 볼 수 있다. 68년생 따로 떼어 놓고 판단함이 정확할 것이다. 80년생 꿈꾸 왔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다. 행운의 숫자 : 09, 86
卯	51년생 현재의 방향으로만 진행한다면 훌륭한 결과가 있겠다. 63년생 형편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75년생 확신이 없다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87년생 오해의 소지는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41, 85	酉	45년생 시간을 초과하면 타격이 올 수 있다. 57년생 의심스런 인연을 만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69년생 총동원되어 야 성사를 기대할 수 있다. 81년생 상응하는 대가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행운의 숫자 : 20, 16
辰	40년생 손톱에 돛을 단다. 52년생 원만하게 진행되리라. 64년생 변동의 폭이 상당히 클 것이다. 77년생 이상이 없으니 노파심은 버리고 현재에 추진해도 된다. 88년생 핵심 가치를 간파한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25, 42	戌	46년생 다 지나 간 것으로만 여겨왔던 옛일을 문제 삼을 수도 있겠다. 58년생 일시적인 충동 심리에서 기인한다면 오래가지 못 할 것이다. 70년생 즐겁고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82년생 희소식을 듣게 된다. 행운의 숫자 : 38, 05
巳	41년생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가변적이다. 53년생 의무적인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만 한다. 65년생 상호 관계에 신경 써라. 77년생 미루지 말고 생각났을 때 끝까지 마무리하라. 89년생 만사형통하는 기운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3, 59	亥	47년생 지금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킨다. 59년생 체면이나 허욕을 버리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71년생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겠다. 83년생 안정된 궤도에 오래 걸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5, 0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